

우리는 우주의 봄, 그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다

세상이 궁금할 때 빅 히스토리
신시아 브라운 지음·이근영 옮김



학교교수가 '세상이 궁금할 때 빅 히스토리'를 펴냈다.

빅 히스토리를 이루는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 새로운 원소와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관된 화학, 행성과 관련된 지질학, 생명의 탄생 분야는 생물학, 인간이 출현한 이후는 고고학과 인류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등의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빅 히스토리는 138억 년 방대한 우주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연구자들은 우주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는 시기를 면밀하게 주목한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임계국면이라고 명명한다.

'빅뱅', '별과 은하의 탄생', '무거운 화학 원소의 등장', '태양계의 탄생', '생명의 탄생',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농업의 탄생', '산업화'가 바로 임계국면이다. 저자는 각 단계마다 책을 읽는 이에게 질문을 던지게끔 유도한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다양한 원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와 같은 식이다.

책은 모두 12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과학적 방법과 빅 히스토리 관련 부분이다. 그리고 10개의 장은 우주 역사에서 일어난 8개의 중요한 사건과 임계 국면을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생명의 탄생



미국의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이 1968년 12월 24일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찍은 달에서 본 지구도이다. <해나무 제공>

임계국면은 2개의 장에 걸쳐 할애돼 있다. 11장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다. 저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면 인간은 '임계국면을 일으키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탄생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물론 빅 히스토리는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우주와 연결된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다. "빅 히스토리는 내가 우주의 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행성 지구에 복잡한 생명체를 위한 골디락스 조건들이 존재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어쩌면 우주의 다른 행성에도 그 조건이 존재할지 모른다. 그 조건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특별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태양 아래 존재하는 순간들이 즐겁고 소중한다."

<해나무·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비에 싸인 우리의 몸 탐험하기

바디 - 우리 몸 안내서
빌 브라이슨 지음·이한음 옮김

을 탐험하는 데 맞춤형 동반자로 저자의 유머러스한 글쓰기 매력이 잘 드러난다.

5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1장 '사람을 만드는 방법'부터 죽음을 뜻하는 23장 '결말'까지 우리 몸에 대한 찬사이자,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각 장은 피부와 털, 머리, 입과 목, 심장과 피, 뼈대, 소화기관 등 몸의 구성 요소와 함께 잠, 균형잡기, 운동, 임태 등 몸이 해내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어느 장부터 읽어도 관계 없다.

1장에서는 드라마 '셜록'의 주연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원소들을 모으는 비용이 얼마나 들



지를 계산한 내용을 소개하며 흥미를 자아낸다. 2013년 케임브리지 과학축제 때 왕립학회 학회회는 사람을 만드는 데는 총 59개 원소가 필요하고 총 비용은 960만 파운드(144억 원)라고 발표했다.

책에서는 75%-80%의 물과 지방, 단백질 등 평범한 물질 세 가지가 생각과 기억과 시각과 미적 감상 등 온갖 일들을 해내는 '뇌'의 신비로움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 없지만 뛰는 일에만 몰두하며 그 일을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내는 신체 기관인 심장과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역할도 살펴본다.

혹시 당신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

빍이인지 아는가? 저자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1만 4000번의 눈을 깜빡이는데, 달리 말하면 하루에 깨어 있는 시간 중 약 23분은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또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1초가 지나는 사이에 당신의 몸은 적혈구를 이미 100만개 만들어 우리 혈관을 따라 바쁘게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1905년 뇌세포들이 파괴되어 있음을 발견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검사를 통해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 아우스쿠테 데터의 모습이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굶기면서 그 변화를 살펴보는 미네소타 대학 영양학자 앤설 키스의 연구에 자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모습을 담은 생생한 사진 등도 눈에 띈다.

영국 '신데이터리즘'가 올해의 과학책으로 선정했다. <까치·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가 원하는 것도 나도 모를 때 =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물음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글을 만나면 마치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감쪽 놀라면서도 크게 위로받게 된다. 책은 이처럼 오늘날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솔한 공감과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인문 에세이다.

<다산초당·1만6000원>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 약속 때마다 습관처럼 늦는 친구에게 한마디 못하고, 은근슬쩍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을 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인다. 참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책은 오랫동안 시달려온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솔직한 내 모습을 찾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알려준다.

<북카리반·1만5000원>

▲갑오 = 우리가 청일전쟁(1894-1895)으로 부르는 역사적 사건을 중국은 중일갑오전쟁 또는 갑오전쟁으로 표기한다. 청일전쟁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의 미래를 건,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책은 1850-1900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내보낸 300여 개 가까운 지면을 통해 당시 서양 미디어가



청일전쟁 전후로 동아시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보도했는지 보여준다. <서해문집·2만5000원>

▲돈의 정석 =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찰스 월런이 돈의 본질, 유용성, 위험, 관리 및 운용 방법에 대해 알려 주는 돈 공부 기본서다. 저자는 '짐바브웨는 왜 그토록 많은 지폐를 찍어 휴지보다 못하게 만들었을까?', '북한은 어째서 누가 봐도 이상한 화폐 개혁을 했을까?'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뿐 아니라 신용거래, 물가, 금리, 환율 등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보여 준다. <부키·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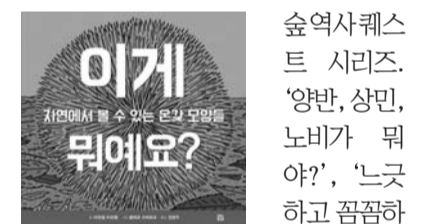
▲어머 이젠 꼭 사야 해! = 책 속에 등장하는 사자와 악어와 고양이들 통해 올바른 소비와 소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평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물건들로 가득한 시장과 마트 풍경을 마카라는 펜을 이용해서 가벼운 색감이지만 복잡다단하게 표현했다.

<노란돼지·1만4000원>

▲이게 뭐예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모양들 = 자연의 위대한 신비를 파헤쳐주는 수수께끼 책이다. 책을 펼치면 왼쪽 페이지에 아이들이 궁금해할만한 호기심 하나가 특 떨어진다. 잔디밭에 꽃힌 막대사탕, 모래에 꽃힌 거인의 손톱, 나무에 매달린 커다란 풍선, 반투명한 비닐봉지 등이 하나하나 등장한다. 오른쪽 페이지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있던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난다.

<머스트비·1만8000원>

▲신분 제도 조선에 떠받치다 = 푸른



숲역사퀘스트 시리즈. '양반, 상민, 노비가 뭐야?', '누고하고 품목하게, 양반의 일상', '우리는 자급자족, 상민의 일과', '바쁘다 바빠, 노비의 하루', '신분에 따라 다른 여가 생활' 등을 통해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유머 넘치는 삽화도 함께 엮었다. <푸른숲주니어·1만3800원>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